

◇지난 24일 송광사 경내에 문을 연 금죽현 미술관에서 스님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사찰 상설미술관에 가면...

# 문화도 만나고 불교도 만난다

#### 낙죽공예품 · 탁본 · 휘호 · 고서화 등 전시품 다양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산사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다. 고즈넉한 산사의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유산들 또한 평소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산사에 최근 상설 미술관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24일 경내에 금죽현미술관을 개관했다. 50평 규모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지어진 금죽현미술관은, 사찰에 불교미술 전시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해 온 사중 스님들의 원력으로 5년만에 완공됐다. 개관 기념전으로 중국 죽편자화(竹編字畵) 대가인 은초선생 초형전과 20여년간 송광사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해 온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후계자 김기찬씨의 낙죽공예품이 전시 중이다.

사찰미술관은 96년 1월 개원한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시초다. 교계 첫

사찰미술전시관으로 문을 연 불일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교미술작품을 전시해 왔을 뿐 아니라 일반미술작품까지 두루 전시하는 등, 주변의 유명 미술관과 어깨를 겨뤘다.

이후 백양사 고불미술관과 해인사 해인미술관이 97년 10월 나란히 문을 열면서 사찰미술관에 대한 불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백양사 경내 우후루 27평을 보수 개조해 마련한 고불미술관은 그동안 탁본전시를 비롯 동화막고굴 보살상 그림전, 고불총림 방장 서운스님 휘호전, 수석전 등 다양한 테마전을 기획해 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해인사 입구에 3층 70여평 규모로 지어진 해인미술관은 3층 전시장에서 고승 서화 특별전, 불교사 진전, 불교미술작가 협회전 등을 열어 왔으며, 1층에는 도예교실과 전통차집

을 마련해 미술감상은 물론 여유롭게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앞도 신성사가 99년 8월 사찰 안의 전통 다례전에 구계미술관을 열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속리산 법주사도 지난 4월 산중다원 법주사문화관을 열어 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문화의 향기를 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밖에 보성 대원사가 오는 가을 완공을 목표로 티베트불교미술관 건립 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찰미술관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현대불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있는 작품 유치와 홍보 등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문화 단신

#### 봉원사 단오맞이 영산재 시연

태고종 봉원사가 오월 단오를 기해 6월 6일 제12회 영산재 시연을 갖는다.

영산재는 지난 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단체지정된 이후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스님) 주최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돼 왔다. 이날 법회에는 인간문화재 영산재기능보유자 제50호 일승스님을 비롯, 준보유자 구해스님, 교육보조자 일승, 기봉, 송강스님이 직접 의식집전에 참여한다. 또 이수자, 전수생, 준회원,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해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02)392-3007

#### 불교음악 전문사이트 개설

불교음악 감상은 물론 불교음악 구매와 주문이 가능한 전문 사이트 'Buddhist Music'이 최근 개설됐다. (www.buddhistmusic.co.kr) 불교음악 전문유통업체인 송강기획이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유통되는 1천5백여종의 불교음악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담겨 있다. 최근 불교음악계의 소식을 모아 놓은 소식란과 박범훈 교수의 불교음악강의도 제공한다. 또 새로 나온 음반, 추천음반을 통해 최근의 음반현황도 알아볼 수 있으며, 각 장르별 대표 음반에서 발매한 불교음악을 MP3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다. (02)745-6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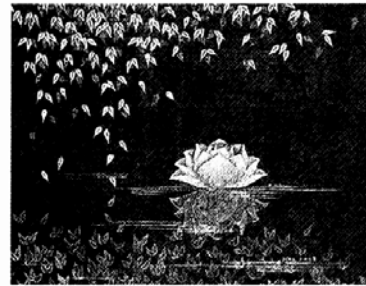
### 가볼만한 전시회 3편

#### 고영을 탕화전 '아름다운 세상'

"우리나라의 전통적 탕화 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서양화 물감으로 탕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불화가 고영을씨가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탕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 '아름다운 세상'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천연염색을 한 비단에 금니로 표현한 '아름다운 세상'을 비롯 소나무로 관을 짜고 천을 씌워 아크릴로 그린 대웅전 외벽 벽화 '극락회상도', 실크스크린, 동관화 등으로 표현된 탕화 등 2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표현상의 기법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씨는



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탕화 그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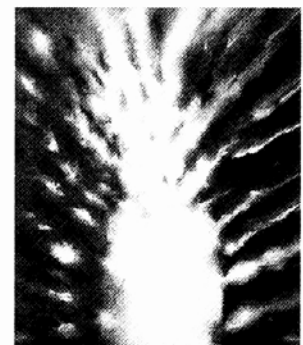
고씨는 서울 전시에 이어 6월 7일 ~ 13일에는 부산 부일갤러리에서, 7월 1일 ~ 7일에는 대전 시민회관 별관에서 전시를 갖는다. (02)720-5114

#### 만다라 40년의 오늘-전성우전

캔버스에 유화, 거기다 다분히 추상주의적으로 표현된 만다라. '21세기 새로운 만다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독특한 만다라 전시가 열리고 있다.

40년간 만다라의 세계를 탐색해 온 전성우 화백이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개관 기념전으로 6월 4일까지 '만다라 40년의 오늘-전성우 전'을 갖는다.

간송미술관 설립자이자 부친인 전형필 선생의 영향으로 젊은 시절 만다라 연구에 몰두. 미국 밀즈 대학에서 유학한 전 화백은 65년 화갑(華甲)만다라 발표 이후 회전만다라, 운경만다라, 광배만다라로 변모해 오면서 독특한 만다라의 세계를 구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90년대 이후 전 화백이 화두로 삼은 청화만다라 연작 등 평면작품



30여점과 부조 15점, 오브제 7점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청화만다라는 전 화백이 청화백자의 푸른 색상의 이미지를 본따 갖가지 형태를 변용한 것으로 기존 만다라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만다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보인다. (02)734-1020

#### 상기호씨 '한지공예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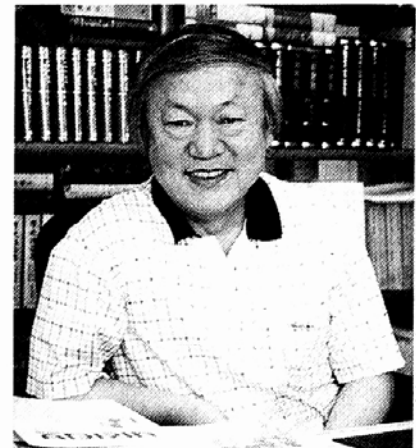
98년 제23회 전통공예대전에서 한지와 삼베를 주제로 불상을 만들고 율동해 도금한 불상인 견칠지 불로 대상을 수상했던 공예가 상기호씨(오색한지공예연구회 회장)가 3년만에 전시를 갖는다.

"전통오색 한지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오색한지공예연구회 회원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26일~6월 1일까지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상씨가 제작한 견칠지 불 3점과 오색한지를 주재료로 만든 색칠상자, 팔각 받침고리, 찻잔과 과반 등 연구회 회원들의 다양한 한지 공예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상씨가 지난 10년간 수집해 온 조선시대 한지공예유물 100여점이 전시돼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



서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지 공예 유물 중에는 종이를 꼬아 사경한 독특한 형태의 반야심경과 병풍, 예단함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전통 한지 공예품도 접할 수 있다. (02)548-8981



◇한용환교수는 우리사회의 문화현상을 내러티브로 조명하겠다고 말했다.

#### 서사연구저널 '내러티브' 창간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한용환 교수

### "내러티브=이야기"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독특한 형태의 만남을 시도하는 등 문화의 틀 자체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 이러한 문화현상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 있는 국내 최초 전문 서사연구저널(내러티브)이 최근 창간됐다. 반년간지로 발간될(내러티브)의 편집인 동국대 한용환교수(국어교육)를 만나 현재의 문화현상과 내러티브의 상관관계에 대해 물었다.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삶의 모든 내력이 바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정착될 때 소설이 되고, 연극이 되고, 또 영화가 된다. 오늘날 선보이는 광고도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런 모든 것이 내러티브다.

-내러티브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 장르들은 대부분 이야기 형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야기가 풍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서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서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야기에 관한 단순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학의 제반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학문임을 통찰한 결과다.

-반년간지(내러티브)가 추구하는 바는?  
(내러티브)는 대중 소비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다양한 서사물의 성격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개의 이야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이야기로 둘러싸인 세계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이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열린 자세로 참신한 견해와 조연을 포용할 것이다.

-불교 경전이나 설화도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내러티브는 종교적 전통을 오늘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 또한 크다. 따라서 불교의 경전과 각종 설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이은자 기자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 바친 공주는  
끝내 천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성불한다.

신비와 전설에 담겨 1천여년을 비전(秘傳)으로 내려온  
눈물과 감동으로 읽는 관세음보살 성도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소설 정찬주 편역

# 아, 관세음보살



변형국판/206쪽/값 5,000원